

리스크 기반 원가(일정)관리의 문화 발전을 기원하며



임 종 권

K-Risk 회장

/(주)바름브레인 대표이사

jklim54@daum.net

K-Risk 뉴스레터는 연초부터 겨울호(2월말), 봄호(5월말), 금번 여름호(8월말), 이어 발간될 가을호(11월말) 등 년 4회 온라인으로 발간된다. 금번 여름호에는 올해 5월말에 발간된 2022년 봄호에 이어 「ESG 관련 리스크에 ERM 적용하기」,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 성숙도 모델 RM3」, 「도로 지오 해저드에 관한 리스크관리 핸드북」, 「당시이 감수하고 있는지 몰랐던 리스크 관리법」과 「기후 리스크관리에서의 인지편향」 등 대부분 외부전문가와 해외 주요기관의 리스크 이야기를 번역하여 인용 수록하였다.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다양한 사례가 창출되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이처럼 외부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과 이를 통한 합리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예방적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리스크기반의 생각과 사고를 많이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로 해외의 사례를 번역, 인용하는 수준에서 뉴스레터의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분석,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 BIM 설계, 중대재해처벌법, 설계안 전성검토, 설계VE,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비 초과 문제, EoT클레임 및 공기지연 문제, 간접비소송 문제, 기존 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건설분야에만도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개념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모두 확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다. K-Risk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리스크에 기반한 문제해결 방법 사례를 늘려나갈 것이다.

기나긴 COVID-19의 늪에서 점점 대면의 시대로 복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후에도 온라인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 행사도 온오프 병행으로 시작한지 꽤 되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대면 참석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해 주는 온라인 참가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단합대회 등 대면 행사로서의 의미가 큰 부분은 앞으로 더욱 강화하며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봄호에 수록했던 양평 춘계단합대회에 이어 이번 호에는 군위 하계단합대회 소식을 담았다. 중년들의 단합대회에 빠질 수 없는 골프 운동은 이번에 고려하였으나 이런 저런 여건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산행으로만 추진하였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폭넓게 골프 운동을 좋아하는 이들이 늘어 청년, 중년 할 것 없이 좋은 단합 프로그램으로 골프 운동만한 것이 없으니 최대한 저렴한 비용추진할만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볼 생각이다. 산과 들판 등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 운동도 요즘 아주 활성화되어 있으니 여러 회원님의 기호에 맞게 K-Risk 단합대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어떤 종목도 좋으니 회원들의 친목, 흥미, 단합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단합프로그램 제안도 적극 환영한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경영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 2021년 1월 새롭게 시작한 (주)바름브레인의 성공 부담도 막중한 터라, K-Risk 회장직 뿐만 아니라 한국건설관리학회(KICEM)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하지만 K-Risk/KICEM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세미나는 3월, 6월에 각각 1회씩 리스크전문가 초청세미나를 실시하였고, 9월 7일에는 올 마지막 [제3회 리스크전문가초청세미나](#)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PRAM/Crystal Ball/@Risk/PRA 등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리스크 분석 S/W도구 활용을 중심으로 리스크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상당한 관심속에 제5차까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다(2022년 [봄호](#) 참조). 이러한 노력이 리스크 기반의 원가, 일정, 클레임, 사업관리, 안전관리 등 많은 분야의 컨설팅 시장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시장 확대에 (주)바름브레인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미려한 힘을 다해 왔다.

올해 마지막 제6차(9/30~10/1) 및 제7차(10/21~22) 리스크 Training Workshop은 국내 유일의 PMI의 [ATP Trainer인 PCCA의 박성철대표](#)가 주강사로서 일정리스크관리를 위한 P6/PRA 도구 활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필자도 배우는 학생 입장으로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공정(리스크)관리/EoT클레임/선진 PMBOK기반의 사업관리에 관심이 있는 회원께서는 참여를 기대한다.

[한국VE연구원의 리스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초기 1~3기생 이후로 약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아직 리스크관리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관심이 높지는 않은 실정이지만, 추후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느 정도 교육생의 사전 모집이 충족되면 수강요청자와의 협의를 통해 리스크전문가 4기 교육생을 시작하고자 한다.

바쁜 일정 속에서 추진한 여러 세미나/교육훈련/단합대회가 회원들의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로 적지 않은 발자취를 남긴 듯하여 돌아보면 뿌듯하기도 하다. K-Risk 발간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1편 일반지침, 제2편 워크숍지침을 발간한 바 있고 금번에는 제3편 RBE(리스크기반견적)지침을 추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RBE가이드라인 1차 워크숍 소식을 본 여름호에 수록하였고 8월 27일 2차 워크숍도 개최되었는데, 이 부분은 [11월 24일에 있을 제3회 PRM컨퍼런스](#)와 함께 가을호에 소개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이 지침서가 포함된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완결판은 위 11월 24일 컨퍼런스의 오프라인 참석자와 온라인 사전참가자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2022년의 공격적인 K-Risk 사업계획도 거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법인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VE연구원의 포괄적 리스크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정리스크관리자 원가리스크관리 등 S/W활용을 기반으로 전문 리스크관리사 양성의 필요성도 논의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K-Risk의 법인화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제 회장 공식 임기내에 꼭 이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할 것을 본 권두언 작성을 계기로 다짐한다.